

## 민주당 경선 막판 투표를 '대박'... 명·낙 '동상낙몽'

### 뉴스 초점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의 피날레를 장식할 3차 선거인단(30만5000여명)의 첫날 투표율이 1·2차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현재로서는 결선투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과반 압승 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막판 선전 여부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대선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결'은 경선 막판 더욱 가열되면서 "경선 이후가 더 격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투표가 마감된 경기지역 권리당원의 투표율은 46.4%로 집계됐다. 권리당원 약 16만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7만4000여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직전 경선

### 3차 슈퍼워킹 투표율 80%대 전망... 10일 서울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 이재명 측 "대선 직행 확정적, '원팀' 통합에 주력" 이낙연 측 "민심 변화 시작...기적 일어날 수 있다"

지역이었던 인천 권리당원 투표율(51.4%)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 투표율도 마찬가지로 저조한 흐름이다. 전날 1일차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서울 권리당원 투표율은 36.1%에 불과했다. 경기(16만명)와 서울(14만명)의 권리당원은 총 30만명에 달한다.

반면,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은 전날까지 59.2%를 기록, 지난 1·2차 때 첫날 투표율을 훨씬 웃돌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지난 2차 선거인단 동시기간 투표율 36.09%보다 무려 23.12%p나 높은 것은 물론 최종 70.36%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1차 선거인단 1일차의 51.19%보다도 8.02%p 높은 수치다. 이 추세대로라면 1차 77.37%에서 2차 59.66%로 크게 낮아졌던 것과 달리 3차 슈퍼워킹의 투표율은 80%대에 육박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10일 서울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경기 경선은 하루 앞선 9일 열린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에서는 과반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선 최대 이슈로 부상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에서 이 지사를 집중 공격하자,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이 지사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판세가 이미 유리하게 기울었지만 경선 후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라도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막판 지지 호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기록한 경선 누적 득표율(57%)까지의 힘들더라도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번 3차 선거인단 투표율 상승이 급격한 수준이라며 거대한 민심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등으로 인해 이 지사로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지층 내에 빠르게 확산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이 지사에게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에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수는 34만1000표로, 이 지사(54만5000표)보다 20만표 가량 뒤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결선 투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선 막판 두 캠프 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당장 경선 이후의 민주당의 원팀 통합이나 진보진영 결집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재명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나 이 전 대표 모두 민주당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지도자"라며 "마지막 경선을 앞두고 두 후보 모두 정권재창출을 위한 헌신과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2순환도로 지산IC 11월 15일 개통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에서 무등산, 지산유원지, 광주 법원 등으로 접근성을 높일 지산 나들목(IC)을 11월 15일 개통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순환도로 지산 IC는 70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총 길이 0.67km, 폭 6.5m로 개설했다.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맡았다.

지산 IC는 우측 차로를 이용해 진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1차로를 통해 왼쪽으로 진출하도록 설계돼 진입 혼란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애초 우측으로 계획했으나, 주거 밀집 지역 주민 민원 등에 따라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국도 29호선 화순 랍터마을, 무안~광주 고속도로 무안공항 IC 등이 좌측 진출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진출로만 있을 뿐 순환도로 진입 차로가 없어 역주행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찰과 협의해 본선 구간 2km 지점부터 1차로 제한 속도를 시속 90km에서 70km로 줄이고, 1km 지점부터는 시속 50km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식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진출 방향과 남은 거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 바닥 차선 안내, 발광다이오드(LED)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며 "왼쪽 진출 등은 운전자에게는 낯선 구조인 만큼 서행과 교통법규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바다분수와 어우러진 목포해상WSO

7일 밤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앞에서 '2021목포해상WSO'가 펼쳐지고 있다. WSO는 '목포의 눈물' 등 목포를 상징하는 노래와 어린이·가족의 시선으로 목포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창작뮤지컬 공연에 맞춰 형형색색의 바다분수가 어우러진 공연이다. 목포시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인 17일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11월말까지 매주 금·토·일 저녁 8시부터 불꽃을 포함한 WSO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한글날 3일 연휴 코로나 확산 중대 고비

###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7명 확진 수도권 하루 확진 2000명 육박

광주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한글날 연휴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시작한 코로나 유행

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다고 보고, 사·도민을 상대로 모임과 외출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산구 건설 현장 관련 6명, 직업소개소 전수 검사 관련 3명, 서구 유흥시설 관련 1명, 기존 확진자 관련 4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1명 등 모두 15명이 신규 확진됐다. 확진자 중 9명은 외국인이다. 광산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50여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중국 노동자 6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광산구,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함께 현장 위험도를 평가하고 접촉자도 파악 중이다. 지난 6일에는 광산구 한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와 원생 110명, 교직원 38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5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222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나주·보성·신안·해남·장성 각 1명이다. 이날 들어

전남에서는 지난 1일 22명→2일 25명→3일 13명→4일 13명→5일 13명→6일 18명으로 두 자릿수 신규 확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427명 늘어 누적 32만5804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240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833명, 경기 851명, 인천 198명 등 총 1882명(78.4%)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95명, 충북 74명, 경북 54명, 충남 52명, 부산 49명, 대구 46명, 대전·강원 각 29명, 전북 24명, 전남 18명, 울산 14명, 광주 13명, 세종 11명, 제주 10명 등 총 518명(21.6%)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16-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